

TV 뉴스 영한 번역 전략 연구 - 영상 기호와 언어 기호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정 나 영
(공주대)

1. 서론

최근 TV 뉴스 채널이 증가하고 DMB를 통한 동영상 시청이 용이해지면서 TV 뉴스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화로 국가별 이해관계도 복잡다단해지면서 TV 국제 뉴스의 보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영미권 등의 강대국의 뉴스에서 한국인 인명 피해 등의 뉴스를 파생시켜 보도하고자 했던 과거의 TV 국제 뉴스 제작 방식, 즉 힘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지금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보고 세계 각지의 소식을 한국 시청자들에게 국내 뉴스와 동일하게 전달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방송공사가 미국 유수의 방송사 ABC와 무료 뉴스 교환에 협의하고¹⁾,

* 본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TV 뉴스의 영한 번역 전략 연구 - 영상 기호와 언어 기호의 연관성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발췌, 수정, 보완, 발전시킨 것임을 밝혀둔다.

전 세계 공영, 민영 방송국의 뉴스 산업 발전과 기술 협력 등을 목적으로 1964년 발족된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Asia Broadcasting Union) 소속국의 뉴스를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한국 시청자들에게 보도²⁾하기 시작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의 TV 국제 뉴스가 과거 유상으로 강대국의 뉴스를 구매해 한국 시청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 세계 각지의 다양한 뉴스를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TV 국제 뉴스의 보도 관행이 변화하면서 외국어 역량을 갖춘 보도 인력을 TV 뉴스 보도에 기용하려는 움직임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도국에서는 다양해진 뉴스 소스를 전달하여 국제 뉴스 아이টে를 발굴, 보도하는 역량과 고도의 외국어 능력을 고루 갖춘 인력이 TV 국제 뉴스 보도에 적절한 인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KBS에서는 <글로벌 24>와 <뉴스라인> 등에서 뉴스 번역사가 취재 기자와 동일한 최종 게이트키퍼, 즉 데스크³⁾ 하에서 직접 국제 뉴스를 발굴하여 보도, 브리핑하는 코너가 마련되었고, 최종 게이트키퍼의 업무 지시 하에 ABU 뉴스를 발굴, 보도하는 업무에도 기자 대신 뉴스 번역사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TV 뉴스 번역은 전형적인 제도적 번역(Mossop 1990: 342)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TV 뉴스 번역사는 목표 언어권의 보도 규범을 준수하거나 준수받기를 요구받을 매우 가능성이 높다(Bani 2005; Bielsa 2007; Chen 2011; Stetting 1989; Vuorinen 1995; 강수정 2013; 이지연 2007; 정나영 2013; 홍정민 2014). 또한 다양한 언론계의 선행연구를 보면 동일한 TV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보

- 1) 한국방송공사와 미국 ABC와의 뉴스 교환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의 KBS 뉴스를 참고할 것.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1537&ref=A>.
- 2) 현재 KBS의 930(<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08#2017.10.19>.) 정오 뉴스(<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09#2017.10.19>.)에서 ABU의 뉴스를 매일 정기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 3) ‘신문사나 방송국의 편집부에서 기사의 취재와 편집을 지휘하는 직위. 또는 그런 사람’(표준국어대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9609200>)
- 4) KBS의 930과 정오뉴스의 ABU 보도를 보면 영상 마지막에 ‘통역: 김세나’ 등의 바이라인이 입력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자가 아닌 통역사를 포함하는 광의의 뉴스 번역사가 보도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 영상을 전달하는 보도문 작성 규범이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백선기 2010; 성창경 2003; 이창훈 외 2002; 김수정 2003). 이는 해외 방송사의 완결된 리포트가 아닌 주로 통신사, 혹은 신문 등의 활자 텍스트를 기반으로 TV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에 비해 해외 방송사의 TV 리포트 자체를 보고, 듣고 번역 보도하는 뉴스 번역사들에게 원천 언어권의 TV 뉴스 보도 규범을 해체하여 목표 언어권의 TV 뉴스 보도 규범에 맞게 조정하여 번역하는 전략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고의 원천 언어권인 영미권과 목표 언어권인 한국어권에서 영상을 보도하는 보도문 작성 규범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와 관련해 기존에 문헌에서 파편적으로 다뤄지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자칫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문헌조사 외에도 원천 언어권과 목표 언어권의 영상 보도 규범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목표 언어권의 보도 규범 준수를 위해 TV 뉴스 번역사들이 실제 취하는 번역 전략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ST⁵⁾-TT⁶⁾ 영상 보도 규범의 차이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원천 언어권의 영미권과 목표 언어권인 한국어권에서는 영상 보도 규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영상을 전달하는 보도 규범 작성 규범의 차이가 존재한다(Boyd 1988; Gibson 1991; Tannenbaum, P.H. & Lynch M.D. 1960; 김수정 2003; 성창경 2003; 이종수 1999; 윤재홍 1998). ‘규범(norm)’은 특정 언어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정의하는 관행 혹은 규칙을 뜻하는데(Hudson 1980:116), 언어 규범은 그 언어가 속한 사회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Chesterman 1997: 54-55). 이에 본고에서는 영상을 전달하는 보도

5) Source Text의 약자로 원천 텍스트를 뜻한다.

6) Target Text의 약자로 목표 텍스트를 뜻한다.

문의 작성 규범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보도 규범을 가장 엄격히 준수하거나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 언론 실무자, 혹은 언론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원천 언어권의 목표 언어권의 영상 보도 규범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TV 뉴스의 보도 영상은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현실이 카메라에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정확성(accuracy)과 객관성(objectivity), 그리고 공정성(fairness)과 균형성(balance)의 4 가지 보도 원칙⁷⁾ 중 객관성과 관련이 깊으며, 해당 보도 영상을 보도문을 통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객관성이 구현되는 방법이 달라진다(Datson & Galison 1992: 81; 김수정 2003: 365 재인용).

가령 보도 영상과 보도문으로 구성되는 TV 뉴스를 하나의 기호로 본다면 기호의 물리적 형태인 기표(signifier, Saussure 1983)는 보도 영상, 그리고 기표로 인해 촉발된 의미화 작용의 산물인 기의(signified, *ibid.*)는 보도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기자의 보도문으로도 볼 수 있다. 영미권 언론학자들은 영상 기표를 ‘객관성’의 산물로 보고 해당 영상을 전달하는 기자의 보도문인 기의는 ‘주관성’의 산물로 인식한 후(Mukerji 1996: 5), 둘 간의 분리를 통해 영상 보도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Tannenbaum, P.H. & Lynch M.D. 1960; Boyd 1988; Gibson 1991; 김수정 2003 등). 좀 더 구체적으로는 카메라로 담아낸 객관적인 영상 기표는 시청자들이 스스로 해석하여야 하며, 영상 기표가 촉발하는 의미화 작용의 결과물을 기자가 보도문이라는 기의를 통해 개입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ibid.*). 따라서 주관성의 개입 소지가 큰 보도문은 영상 기표의 기의 전달이 아닌 영상 기표와 관련되지 영상 기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가적인 팩트(facts), 즉 사실적 정보들로 구성할 것을 영미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Boyd 1988; 김수정 2003). 가령 교통사고 현장을 보도할 경우 교통사고 영상 기표를 기자가 해석하여 묘사하는 형식, 즉 영상 기표의 기의 전달 대신 영상 기표와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들, 가령 사고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각, 그리고 운전자의 사고 이력 등의 사실적 정보를 전달할 것이 요구된다.

반면 본 연구의 목표 언어권인 한국어권의 언론학자들은 영상 속 현실을

7) 정확성은 뉴스의 내용에 거짓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고, 객관성은 뉴스 보도에 선입견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공정성이나 균형성은 뉴스 보도가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매스컴대사전 1993).

객관적 사실로 간주하되 해당 영상을 전달하는 보도문 역시 객관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수정 2003; 성창경 2003; 이종수 1999; 윤재홍 1998). 이 경우 객관적 보도 영상 기표는 객관적 보도문에 의해 그 기호가 고정되고 이를 통해 TV 뉴스가 객관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 때 보도 영상과 보도문은 기호의 자원이 다를 뿐 사실상 중복되는 의미를 갖게 되며, 영상은 보도문의 객관성의 증거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다(김수정 2003). 즉 한국어권에서는 보도문이 보도 영상만으로도 파악 가능한 현실을 재차 묘사해 주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교통사고 보도 영상 기표 자체의 기의, 가령 ‘자동차’ ‘달리다’ ‘후진하다’ 등을 최대한 객관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방식이 한국어권에서 요구되는 규범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를 종합하면 영미권에서는 보도문을 통한 보도 영상의 기의 정박을 지양할 것을 요구된다면 한국어권에서는 보도문과 보도 영상의 기의 중복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김수정(2003: 377-388)은 이 같은 영미권의 영상 보도 방식을 ‘분리화’, 그리고 한국어권의 영상 보도 방식을 ‘일치화’로 지칭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김수정(2003)에 의거, 전자의 영상 보도 방식을 ‘분리화 규범’ 후자의 영상 보도 방식을 ‘일치화 규범’으로 칭하고자 한다.

2.2. 영상 기호와 언어 기호의 연관성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원천 언어권의 분리화 규범, 그리고 목표 언어권의 일치화 규범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분석 틀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시청각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다중모드 텍스트의 번역 연구에서는 텍스트 내 개별 기호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호간 연관성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호가 응집하여(cohesive) 상호작용(interplay)함으로써 그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Balirano 2013: 564; Ketola 2016: 72; Zabalbeascoa 2008: 25). 이처럼 다중모드 텍스트 내에서는 각 기호가 특정 연관성을 가지고 결합하면서 ‘개별 모드의 총합을 초월하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화 체계가 만들어지고(creates a whole new system of signification, transcending

the combined contribution of individual modes)’ ‘의미가 확장되기도 한다 (results in an expansion of meaning)’(Ketola 2016: 72). 이에 의거해 볼 때, 대표적인 다중모드 텍스트인 TV 뉴스 텍스트에서도 보도 영상과 보도문의 연관성이 전체 의미 산출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논의한 보도 영상을 보도문이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관련한 문제인 분리화와 일치화 규범 역시 근본적으로 두 기호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결합하는지의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호간 연관성의 개념을 본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본 절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바르트는 이미지와 언어 기호의 관계를 크게 정박(anchorage)과 중계(relais)로 분류하였다(Barthes 1977). 바르트는 이미지와 언어 기호가 정박의 연관성을 맺을 때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언어 기호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며, 이미지가 가지는 기의의 다의성이 언어 기호를 통해 해소된다고 설명한다. 이미지 속에서 기의는 역동성을 갖는데 언어 기호를 통해 그 기의가 하나로 고정 혹은 정박되는 것이 바르트가 제시한 ‘정박’ 개념의 핵심이다. 반면 바르트가 제시한 중계는 이미지와 언어 기호에 동등한 무게가 주어지며 양 기호 채널이 바턴을 주고받듯이 전체 의미를 만들어내는 상호 작용을 뜻한다. 가령 만화책에서 그림과 말풍선이 교대로 이어져가며 전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중계 관계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바르트가 제시한 양 기호 채널 간 정박과 중계의 연관성은 이후 다양한 연구에 의해 새로운 개념어로 다시 설명되거나 세부 유형화되기 시작한다(Mitchell 1994; Zabalbeascoa 2008; 구명철 2002; 이성엽 2014; 최용호 2004 등). 먼저 바르트가 제시한 정박의 개념의 경우 이미지의 기의가 언어 기호를 통해 하나로 정박되는 만큼 이미지의 기의 일부가 언어 기호와 동일한 기의를 갖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사발베아스코아(Zabalbeascoa 2008: 31)는 시청각 텍스트 속 복수의 기호간 불필요하고(unnecessary), 잉여적인(superfluous) 반복(repetition)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 기호는 중복(redundancy)의 연관성을 맺는다고 설명한다. 그림책을 연구한 미첼(Mitchell 1994) 역시 복수의 기호간에 나타나는 의미 중복을 두고 이들 기호 채널 간에는 의미의 경계가 없는 만큼 이들 기호는 모드만 다를 뿐 동일한 기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 이

를 ‘완전히 종합적인(absolutely synthetic) 관계’라고 설명한다. 그림책을 연구한 이성엽(2014: 109-119)와 광고를 연구한 구명철(2002: 434-439) 역시 이미지와 언어 기호가 기의의 중복성을 떨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바르트가 제시한 중계의 관계는 의미 전달에 있어 이미지와 언어 기호에 동등한 무게가 주어지고 복수의 기호 채널이 상호 교대해 가며 전체 의미를 산출하는 만큼 기호간 기의 중복 최소화가 핵심이다. 이를 두고 사발베아스코아(Zabalbeascoa 2008: 31)는 시청각 텍스트의 복수의 기호는 기호간 상호의 존성을 통해 텍스트의 잠재적 의미를 만들며 각 기호가 모드적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상보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전체 의미를 산출한다며 이를 ‘상보성(Complementarity)’의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미첼(Mitchell 1994) 역시 이미지와 언어 기호간 서로의 기호적 특성에 맞게 서사를 구성하는 경우 텍스트적 지시 관계(textual reference)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완전히 분리된(absolutely disjunctive)’ 관계로 간주한다. 그림책을 연구한 이성엽(2014: 16) 역시 이미지와 언어 기호가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면서 서사를 구성하는 ‘교차’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고, 구명철(2002: 434-439)는 이미지와 언어 기호의 전체 의미가 상호 보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봄가든(Baumgarten 2008)은 이미지 기호와 언어 기호가 내포적으로(implicity) 동일한 상황을 지칭하는 관계를 두고 양 기호가 ‘응집성(cohesion)’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가령 TV 뉴스에서 참담한 교통사고 현장을 두고 보도문이 ‘tragic end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tragic ending’이라는 함축적인 보도문 자체로는 의미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함께 송출되는 구체적인 사고 현장 영상과 응집성을 이루면서 언어 기호의 기의가 구체적으로 고정된다. 구명철(2002) 역시 함축적인 광고 카피와 함께 구체적인 이미지가 제시될 경우 언어 외적 맥락이 추가되면서 광고 카피가 해석되는 실마리가 제공된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언어 기호의 다의성이 이미지를 통해 해소되는 관계를 ‘고정’으로 보았다. 바르트(Barthes 1977)의 ‘정박’과 구명철(2002)의 ‘고정’은 일견 유사해 보이지만 전자는 다의적 이미지의 기의가 구체적인 언어 기호를 통해 고정되는 것인 반면 후자는 함축적 언어 기호의 기의가 이미지를 통한 언어 외적 맥락 추가를 통해 고정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복수의 연구 중 TV 뉴스에서의 보도 영상의 기

표와 보도문의 기의가 분리되는지 일치하는지를 비교적 종합적이고 중립적으로 드러내는 이성엽(2014)의 ‘중복’과 ‘교차’의 개념어를 차용하고자 한다. TV 뉴스의 측면에서 볼 때, 중복은 TV 뉴스의 영상 기표와 언어 기의가 중복성을 띠는 관계, 교차는 TV 뉴스의 영상 기표와 언어 기호가 잉여 정보를 가지지 않도록 각자의 특성에 맞게 서사를 형성하는 관계로 조작적으로 다시 정의할 수 있겠다. 아울러 구명철(2002)이 제시한 ‘고정’의 개념, 즉 함축적 언어 기호가 구체적 맥락을 더해주는 이미지 기호에 의해 그 기의가 고정되는 현상 역시 TV 뉴스의 보도 영상이 현장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정’을 TV 뉴스의 영상 기표에 의해 언어 외적 맥락이 더해지며 함축적 언어 기호의 기의가 고정되는 관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원천 언어권의 분리화와 목표 언어권의 일치화 규범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언어 기호와 영상 기호의 연관성인 중복과 교차, 그리고 고정의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찰해 본다. 앞서 논의했듯이 중복의 연관성은 영상과 언어 기호의 기의 중복이 핵심이다. 목표 언어권의 일치화 규범에서 역시 보도문과 보도 영상의 기의 일치가 요구되는 만큼 둘은 ‘중복’의 연관성의 맺을 확률이 매우 높다. 반면 분리화 규범에서의 보도문은 영상의 기의 전달이 아닌 영상으로는 알 수 없는 부가적인 정보여야 하는 만큼 둘간의 기의 중복은 최소화된다. 따라서 영상 기호와 언어 기호간 상보적으로 서사를 형성하는 교차의 관계는 분리화 규범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체적인 영상 기호와 함축적인 언어 기호로 이루어지는 ‘고정’의 경우도 두 기호의 본질적인 성격이 달라 기의 중복이 최소화될 것이므로 분리화 규범에서 자주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미권 분리화 규범의 지표를 영상과 언어 기호의 교차 혹은 고정의 연관성으로, 한국어권 일치화 규범의 지표를 영상 기호와 언어 기호의 중복의 연관성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2.3. 이미지 문법(Visual Grammar)

본 연구의 원천 언어권인 영미권에서는 TV 뉴스의 일반적인 길이가 2분 이

상인 데에 반해 목표 언어권인 한국어권에서는 TV 뉴스의 일반적인 길이가 1분 20초인만큼 목표 언어권의 보도 규범을 준수하는 TV 뉴스 번역에서는 과감한 길이 축약이 발생한다(이지연 2007; 강수정 2013; 정나영 2013; 최영재 외 2013; Tsai 2005).

인쇄 매체 뉴스와는 달리 TV 뉴스는 ‘시각적 흥미(visual attraction)’, 즉 시청자의 눈길을 끄는 보도 영상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뉴스의 보도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이창현 2007: 97). 일부 TV 뉴스는 시각적 흥미가 높은 영상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보도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이운성 2013; 이지현 외 2010; 최영재 외 2011, 2013). 따라서 목표 언어권의 보도 규범을 준수하는 TV 뉴스 번역에서도 길이 축약 과정에서 원천 TV 뉴스의 보도 영상 중 보도 가치가 높은 영상, 즉 시각적 흥미가 높은 영상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어 목표 텍스트에 활용될 것이다(이창현 2007, 정나영 2013, Tsai 2005).

심리학에서는 관찰자의 시각적 흥미를 자극하는 요소로 크게 각성도(activation)와 정서적 자극(affective stimuli)이 있다고 설명한다(Bradley 1994; Byron et al. 1991; Cacioppo & Tassinary 1990; Fernandes 2011; Reeves 1999; 이창현 외 2012). 각성도는 주로 영상이 가지는 역동성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가령, 움직이지 않는 건물이나 도시의 전반적인 풍경과 같은 정적인 영상보다는 빠르게 움직이는 동적인 영상, 가령 허리케인이 거목을 쓰러뜨리는 영상 혹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 사고를 일으키는 영상 등이 각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ibid.*). 반면 정서적 자극은 감성의 기의가 개입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관찰자들은 중립적 영상보다 감성을 자극하는 영상에 더 높은 시각적 흥미를 보인다(Fernandes 2011; Reeves et al. 1999; Byron et al. 1991). 가령 시리아 난민에 관한 TV 뉴스 보도 중 무덤덤하게 피난 행렬에 오르는 성인 난민과 울분을 쏟아내는 어린이 난민의 영상이 있다면 시청자들은 후자의 영상에 더 주목하게 될 것이다. 심리학의 ‘시각적 흥미’의 개념에 의거해 볼 때, TV 뉴스에서도 시청자의 시각적 흥미를 자극하는 보도 영상은 크게 각성도가 높은 영상과 정서적 자극이 높은 영상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따라서 시각적 흥미가 높은 영상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TV 뉴스 번역에서도(이창현 2007, 정나영 2013, Tsai 2005) 각성도와 정서적 자극이 높은 영상이 목표 텍스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가 영상과 관련된 TV 뉴스 번역 전략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목표 텍스트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각성도와 정서적 자극이 높은 영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언어와는 달리 이미지 기호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참고할 사전도 없는 만큼 언문학에서도 보도 영상 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어려움의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Wehn 2001: 71; Messaris 2001: 145). 그러나 최근 사회기호학자 크레스와 반 리우웬(Kress and van Leeuwen 2006)이 제시한 이미지 문법(Visual Grammar)이 매스미디어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미지의 과학적 분석에 방법론적 돌파구가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Wang 2014, Lean 2011, 이정은 2013, 정은중 2005, 최희경 2011 등). 이미지 문법의 핵심은 이미지 속 개별 요소가 전체 서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와 관련해서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문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 같은 문법에 따라 이미지의 유형도 체계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미지 문법(Kress and van Leeuwen 2006)에 따르면 이미지는 크게 서사적 재현의 행위 과정(action process)과 서사적 재현의 반응적 과정(reactional process)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미지 문법에서는 이미지 속에 존재하는 모든 피사체를 이미지의 서사 구성에 기여하는 참여자(participant)로 보는데, 서사적 재현의 행위 과정의 이미지에서는 참여자 중 하나인 행위자(actor)가 다른 참여자인 목표물(goal)을 향해 특정 움직임, 즉 벡터(vector)를 취한다. 이는 언어 기호로 치환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지는 3형식과 유사한 문장으로, 가령 이미지 속에서 한 소녀가 꽃을 주워 담는다면 주어는 ‘소녀’, 목표물은 ‘꽃’, 그리고 벡터는 ‘주워 담다’가 될 수 있다. 반면 서사적 재현의 반응적 과정의 이미지에서는 벡터가 특정 움직임이 아닌 참여자의 시선(eyeline)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 시선을 발산하는 참여자는 반응자(reactor), 그리고 반응자의 시선이 꽂히는 참여자는 현상(phenomenon)이 되는데, 반응적 과정에서는 현상을 바라보는 반응자의 눈빛이나 표정을 통해 감성(emotion)의 기의가 만들어진다(Kress and van Leeuwen 2006). 가령 <그림 1>의 이미지의 경우 세수를 하는 남성이 현상이 되고 이를 바라보는 반응자인 여성의 눈빛에 의해 벡터가 형성되며, 여성의 눈빛과 표정을 통해 ‘존경’과 ‘감탄’ 등의 감성의 기의가 만들어진다(ibid.).

〈그림 1〉 서사적 재현 반응적 과정의 예(Kress and van Leeuwen 2006)



앞서 논의한 각성도가 높은 영상과 정서적 자극이 높은 영상은 전자는 동적인 움직임과 역동성이 개입되고 후자는 감성이 개입된다는 측면에서 각각 이미지 문법에서 제시하는 서사적 재현의 행위 과정과 서사적 재현의 반응적 과정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목표 텍스트에서 서사적 재현의 행위 과정과 반응적 과정 영상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어 번역된다는 판단 하에 이와 관련된 영상 보도 규범과 영상 관련 전략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텍스트 분석 결과

3.1. 텍스트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뉴스 번역사를 기용해 영미권 TV 뉴스를 한국어 TV 뉴스로 번역하여 보도하는 KBS 월드뉴스를 목표 텍스트로 삼았고, 이에 대응하는 원천 텍스트를 키워드와 날짜 검색으로 추출한 결과 외신 출처는 CNN과 ABC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번역 연구에서 총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 200쌍 이상을 분석하면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송연석 2013, 김진원 2010, 홍정민 2014 재인용),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목표 텍

스트인 KBS 월드뉴스를 220건 추출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원천 텍스트도 220건을 추출하였다. 또한 목표 언어권의 영상 보도 규범도 함께 파악하기 위해 목표 텍스트에 대응하는 병렬 텍스트(PT)⁸⁾ 220건도 함께 추출하였다. 본고에서는 다른 뉴스 번역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천 텍스트와 동일한 주제의 뉴스를 한국어권 기자라 바로 작성한 뉴스를 병렬 텍스트로 간주하였다. 단, 주제가 완전히 일치하는 병렬 텍스트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제와 큰 틀에서 유사성을 띠는 뉴스로 대체하였다⁹⁾. 단 본 연구는 보도 영상을 전달하는 보도문 작성 규범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원천 텍스트에 포함된 보도 영상과 유사한 형태의 보도 영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만 병렬 텍스트로 보았음을 밝혀둔다.

앞서 추출한 220쌍의 보도 영상 중 새롭게 현장에서 채취한 사건 영상이 포함되지 않은 115쌍은 제외하고 105쌍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자료화면이나 로케이션쇼트 등은 이미 다른 보도에서 끊임없이 사용되어 온 영상인 만큼 이미 구문으로 시청자들의 시각적 흥미가 높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 쌍 당 시각적 흥미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 하나의 쇼트¹⁰⁾를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05쇼트 중 서사적 재현의 행위 과정이 72쇼트, 서사적 재현의 반응적 과정이 33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헌조사를 통해 일부 결과를 도출한 바 있는 원천 언어권과 목표 언어권의 영상 보도 규범의 차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보도 영상을 전달하는 보도문 작성 규범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의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 그리고 병렬 텍스트에서 보도 영상을 두고 어떠한 보도문을 송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보도문과 보도 영상의 연관성, 즉 중복과 교차, 그리고 고정인 비율로 나타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텍스트의 질적 분석을 통해 목표 언어권의 보도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번역 텍스트에서는 실제 어떠한 영상 관련 번역 전략이 활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8) Parallel Text의 줄임말로 병렬 텍스트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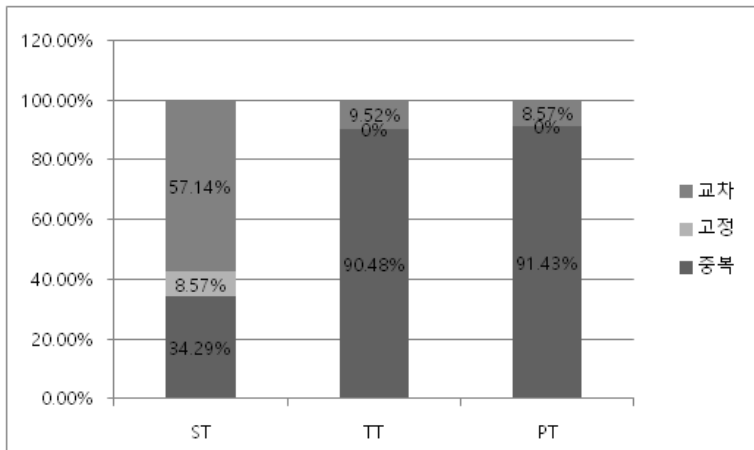
9) 가령 오랫동안 자신의 우유를 배달해 준 택배 아저씨가 관할 지역이 바뀌자 직접 택배 회사로 찾아가 재회 한 <표 12> 뉴스의 경우 ‘은인’ ‘재회’ 등의 키워드로 병렬 텍스트를 검색하여 가장 최근의 뉴스 중 주제 유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뉴스를 병렬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10) ‘촬영의 기본 단위로써 한 번에 촬영한 장면’(출처: 영화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9499&cid=42617&categoryId=42617>)

3.2. ST-TT 영상 보도 규범의 차이

전체 105쌍의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 그리고 병렬 텍스트를 대상으로 보도 영상과 보도문의 연관성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천 텍스트에서는 중복 36 쇼트(34.29%), 고정 9쇼트(8.57%), 교차 60쇼트(57.14%), 목표 텍스트에서는 각각 95쇼트(90.48%), 0쇼트(0%), 10쇼트(9.52%), 병렬 텍스트에서는 96쇼트(91.43%), 0쇼트(0%), 9쇼트(8.57%)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 전체 보도 영상과 보도문 연관성 양적 분석 결과(단위: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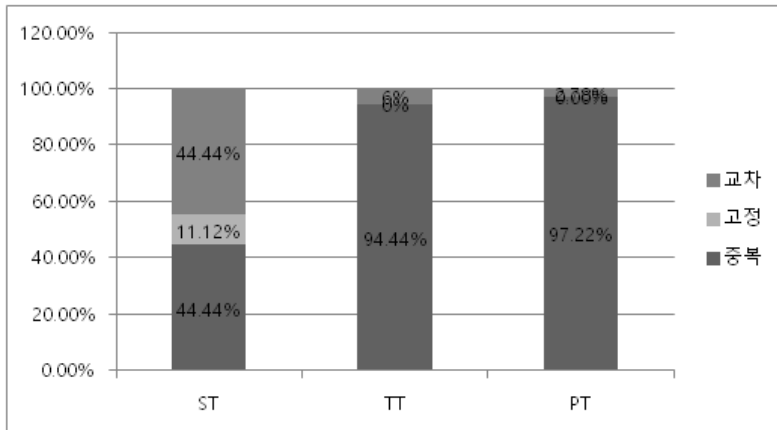


원천 텍스트에서는 고정과 교차, 즉 분리화 규범이 적용된 사례가 총 69쇼트(65.71%)를 차지한 반면 병렬 텍스트에서는 중복, 즉 일치화 규범이 적용된 사례가 총 96쇼트(9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천 언어권에서는 분리화 규범, 목표 언어권에서는 일치화 규범이 부과된다는 문헌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다. 또한 목표 텍스트와 병렬 텍스트는 각 연관성 별로 대동소이한 비율을 보여 TV 뉴스 번역은 목표 언어권의 보도 규범을 준수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이지연 2007, 강수정 2013, 정나영 2013)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원천 텍스트에서는 분리화 규범 적용 사례가 70%를 밑도는 반면 병렬 텍스트에서는 일치화 규범 적용 사례가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 언어권에서의 일치화 규범이 원천 언어권에서의 분리화 규범에 비해 강제성이 더

강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실제 병렬 텍스트에서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은 고정
의 연관성이 원천 텍스트에서는 9쇼트 발견된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영상 유형별로도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사적 재현의 행위 과정 75쇼트를 대상으로 보도문과 보도 영상의 연관성 양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천 텍스트에서 중복 32쇼트(44.44%), 고정 8쇼트(11.12%), 교차 32쇼트(44.44%), 목표 텍스트에서 중복 68쇼트(94.44%), 고정 0쇼트(0%), 교차 4쇼트(5.56%), 병렬 텍스트에서 중복 70쇼트(97.22%), 고정 0쇼트(0%), 교차 2쇼트(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서사적 재현 행위 과정 영상과 보도문 연관성 양적 분석 결과(단위: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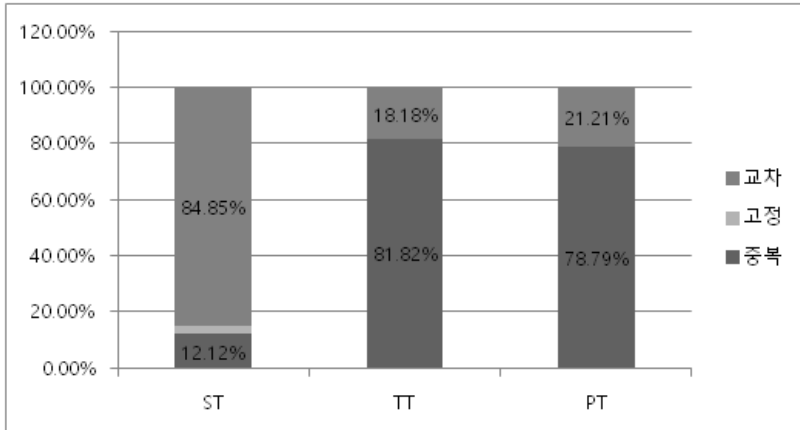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사적 재현 행위 과정 영상의 경우 원천 텍스트에서는 고정과 교차, 즉 분리화 규범이 적용된 사례가 총 40쇼트(55.56%)인 반면 중복, 즉 일치화 규범이 적용된 사례가 총 32쇼트(총 44.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렬 텍스트에서는 분리화 규범이 적용된 사례가 총 2쇼트(2.78%)인데 반해 일치화 규범이 적용된 사례가 총 70쇼트(97.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사적 재현의 행위 과정 영상의 경우 원천 언어권과 목표 언어권 모두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범에 비해 일치화 규범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는 더 나아가 기본적으로 분리화 규범이 적용되는 원천 텍스트의 경우 서사적 재현의 행위 과정 영상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일

치화 규범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며, 이 경우 서사적 재현의 반응적 영상에 비해 목표 언어권의 일치화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사적 재현의 반응적 과정 영상의 경우 원천 텍스트에서 중복 4쇼트(12.12%), 고정 1쇼트(3.03%), 교차 28쇼트(84.85%), 목표 텍스트에서 중복 27쇼트(81.82%), 고정 0쇼트(0%), 교차 6쇼트(18.18%), 병렬 텍스트에서는 중복 26쇼트(78.79%), 고정 0쇼트(0%), 교차 7쇼트(21.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서사적 재현 반응적 과정 영상과 보도문 연관성 양적 분석 결과(단위: 백분율)



서사적 재현 반응적 과정 영상의 경우 원천 텍스트에서는 고정과 교차, 즉 분리화 규범이 적용된 사례가 총 29쇼트(87.88%)인 반면 중복, 즉 일치화 규범이 적용된 사례가 총 4쇼트(총 1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렬 텍스트에서는 분리화 규범이 적용된 사례가 총 7쇼트(21.21%)인데 반해 일치화 규범이 적용된 사례가 총 26쇼트(78.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사적 재현 반응적 과정 영상의 경우 원천 언어권과 목표 언어권의 기본 규범보다 분리화 규범이 더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응적 과정 영상의 경우 영상의 근본적 특징이 주관성의 산물인 감성(emotion)의 기의 개입에 있는 만큼 분리화 규범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도문의 객관성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원천 언어권에서는 분리화 규범을 더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그리고 목표 언어권에서는 일치화 규범을 상대적으로 덜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주관적 기의가 포함되는 영상을 보도문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번역의 관점에서 볼 때 서사적 재현의 반응적 과정에서는 원천 텍스트의 분리화 규범을 목표 텍스트의 일치화 규범에 맞게 조정하여 번역하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3. TV 뉴스에서의 영상 관련 번역 전략

문헌조사와 텍스트의 양적 분석을 통해 원천 언어권에서는 영상을 전달하는 보도문 작성에 있어 분리화 규범이 그리고 목표 언어권에서는 일치화 규범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TV 뉴스 번역에서 원천 언어권의 분리화 규범을 해체하여 목표 언어권의 일치화 규범에 맞게 조정하여 번역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번역 전략이 활용되는지 텍스트의 질적 분석을 통해 파악할 결과 영상의 명시화(explicitation) 전략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영상의 명시화’ 전략은 아동 문학을 연구한 신지선(2005)의 ‘그림(illustration)의 명시화’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녀는 이(理) 언어간 번역의 보편소로 알려져 있는 명시화(explicitation, Vinay & Darbelnet 1958), 즉 원천 텍스트의 암시적 내용을 목표 텍스트에서 드러내어 번역하는 전략을 기호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 Jakobson 1959),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림 기호와 언어 기호간 번역에까지 확대 적용한 바 있다. 신지선(2005: 137)은 원천 텍스트의 그림 기호의 내용이 언어 기호에 없거나 암시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그림 기호를 언어 기호로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번역하는 전략으로 ‘그림의 명시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도 원천 텍스트 영상 기호의 내용이 언어 기호에 생략되어 있거나 암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 영상 기호의 내용을 목표 텍스트에서 언어 기호로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번역하는 전략으로 ‘영상의 명시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이미지를 언어 기호로 드러내어 번역하는 전략은 이미지 기호의 기의가 언어 기호에




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만큼 양 기호 채널간의 기의 중복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 TV 뉴스 번역에서 영상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 ‘영상의 명시화’ 전략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영상 유형별로는 서사적 재현의 행위 과정에서는 행위자와 벡터, 그리고 목표물의 명시화와 현장음의 명시화 전략이, 그리고 서사적 재현의 반응적 과정에서는 반응자의 감정 명시화 전략이 활발히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1. 행위자, 벡터, 목표물의 명시화



<표 4>의 뉴스는 안전벨트 없는 시내버스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원천 텍스트에서는 실제 충돌 사고 발생 당시의 시내 버스 CCTV 영상, 좀 더 구체적으로는 승객의 쓰러짐, 즉 행위자와 벡터가 살아있는 서사적 재현의 행위 과정 영상을 보도했고, 목표 텍스트에서는 해당 영상의 앞부분 2초를 삭제한 후 나머지 4초를 그대로 가져다 보도하고 있다.

<표 4> 행위자와 벡터 그리고 목표물의 명시화 예시 1

ST 영상 기호	ST 언어 기호	TT 영상 기호	TT 언어 기호
SV1)0028-0030(2초) 	SL1) All those cameras onboard		
SV2)0030-0033(3초) 	SL2) show what happened	TV2)0033-0036(3초) 	TL2) 서 있던 남성 탑승객이 앞 유리에 세계 부딪혀
SV3)0033-0034(1초) 	SL3) even at just 25 miles an hour.	TV3)0036-0037(1초) 	TL3) 쓰러집니다.

원천 텍스트에서는 해당 영상과 함께 해당 영상과 독립적인 서사를 구성하여 거의 중복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보도문 ‘All those cameras onboard show what happened even at just 25 miles an hour(이 모든 CCTV를 통해 시속 25마일에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을 송출하고 있다. 즉, 원천 텍스트에서 보도 영상과 보도문이 교차의 연관성을 이루는 분리화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목표 텍스트에서는 원천 텍스트의 분리화 규범 대신 목표 언어권의 일치화 규범을 준수하기 위하여 영상의 명시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행위자를 ‘서 있던 남성 탑승객이’로 목표물을 ‘앞 유리’로 벡터를 ‘세계 부딪혀 쓰러집니다’로 명시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표 5> 행위자와 벡터 그리고 목표물의 명시화 병렬 텍스트 예시 1

PT 영상 기호	PT 언어 기호
PV1) 00:17-00:20 (3초) 	PL1) 한 남성이 중절모를 쓰고 천천히 버스에 오릅니다.
PV2) 00:20 - 00:24 (4초) 	PL2) 좌석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버스가 출발하자 갑자기 앞으로 엮어잡니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병렬 텍스트에서도 목표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영상 속 행위자를 ‘한 남성’ 목표물을 ‘좌석으로’와 ‘버스에’, 그리고 벡터를 ‘오릅니다’와 ‘앞으로 엮어잡니다’로 명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사례로 살펴본다.

<표 6>의 뉴스는 미국의 한 모터쇼에서 전기차가 처음 선보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원천 텍스트에서는 전기차가 모터쇼에 등장하는 현장 영상,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서사적 재현의 행위 과정 영상을 보도하고 있다. 목표 텍스트에서도 앞의 5초 정도를 제외하고 해당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표 6〉 행위자와 벡터 그리고 목표물의 명시화 예시 1

ST 영상 기호	ST 언어 기호	TT 영상 기호	TT 언어 기호
SV1)00:03-00:05 (2초) 	SL1) The race to the to the future	TV1) 삭제됨	TL1) 삭제됨
SV2)00:05-00:08 (3초) 	SL2) in automaking took off	TV2) 삭제됨	TL2) 삭제됨
SV3)00:08-00:10 (2초) 	SL3) at a walking pace.	TV3)00:00-00:02 (2초) 	TL3) 미래형 전기 자 동차 스트라티가
SV4)00:10-00:13 (3초) 	SL4) None	TV4)00:02-00:05 (3초) 	TL4) 시민들의 호기심 속에 움직입니다.

원천 텍스트에서는 언어 외적 맥락이 추가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는 함축적 보도문인 ‘The race to the future in automaking took off at a walking pace(자동차 제조업에서의 미래를 향한 경주가 느린 속도로 시작되었습니다)’를 송출하고 있다. 이 보도문은 전기차가 등장하는 모터쇼의 구체적인 영상을 통해 언어 외적 맥락이 추가되면서 그 기의가 고정되고 있는 만큼 보도문과 보도 영상은 분리화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목표 텍스트에서는 원천 텍스트에서의 보도 영상과 보도문의 연관성을 해체하고 영상 자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사적 재현 영상 속 행위자와 벡터를 각각 ‘미래형 전기 자동차 스트라티가’와 ‘움직입니다’로 명시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병렬 텍스트도 살펴본다.

〈표 7〉 행위자와 벡터 그리고 목표물의 명시화 병렬 텍스트 예시 2

PT 영상 기호	PT 언어 기호
SV1) ¹¹⁾ 	PL1) 음성명령을 내리자 <u>자동차가 스스로 출발합니다.</u>
SV2) 	PL2) 장애물이 나타나자 <u>자동차가 알아서 멈춥니다.</u>
SV3) 	PL3) 좁은 도로도 <u>능숙하게 통과해</u>
SV4 	PL4) <u>무대 위에 오릅니다.</u>

<표 7>의 병렬 텍스트에서 역시 서사적 재현의 행위 과정 영상 속에 존재하는 행위자를 ‘자동차’로, 목표물을 ‘무대 위에’로 벡터를 ‘출발합니다’ ‘멈춥니다’ ‘통과해’ ‘오릅니다’ 등으로 명시화하고 있다. 이는 <표 5>의 병렬 텍스트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목표 언어권의 기자들도 뉴스 번역사와 마찬가지로 일치화 규범 준수를 위해 영상의 명시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3.3.2. 현장음의 명시화

서사적 재현의 행위 과정에서는 현장음, 즉 사운드바이트를 언어 기호로 시화하는 전략도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의 원천 텍스트는 사설 구급차 업체가 불필요한 환자까지 실어 나르면서 세금을 잡아먹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뉴스의 첫 장면에서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하는데 이 때 ‘Ambulances can save your life. But these are stealing

11) 이 뉴스는 모바일에서 뉴스가 재생되는 동안 초수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 타임 코드(Time Code)를 표기하지 못하였다.


your tax dollars(구급차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구급차는 세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라는 보도문이 송출되고 있다. 보도 영상과 보도문은 독립된 서사를 이루며 의미의 빈틈을 채우는 만큼 교차의 연관 관계를 맺으며 분리화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양상이다.

〈표 8〉 현장음의 명시화 예시 1

ST 영상 기호	ST 언어 기호	TT 영상 기호	TT 언어 기호
SV1)00:00-00:04(4초) 	SL1) (background sound - siren) Ambulances can save your life.	TV1)00:00-00:01(1초) 	TL1) 현장음/ 사이렌 소리
SV2)00:04-00:07(3초) 	SL2) But these are stealing your tax dollars.	TV2)00:01-00:04(3초) 	TL2)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목표 텍스트에서는 동일한 보도 영상을 활용하면서 현장음인 사이렌 소리를 보도문에서 ‘사이렌을 울리며’라고 명시화하고 있으며, 이때 보도 영상과 보도문은 중복의 연관성을 맺는다. 즉 보도 영상과 보도문은 일치화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현장음의 명시화 병렬 텍스트 예시 1





PT의 영상 기호	PT의 언어 기호
PV1)00:00-00:05(5초) 	PL1)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 한 대가 급히 어디론가 향합니다.

실제 병렬 텍스트에서도 보도문과 보도 영상은 중복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일치화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도 영상에 삽입된 현장음이 ‘사이렌을 울리며’라는 보도문으로 명시화되고 있다. 이는 목표 언어권 기자들 역시 일치화 규범 준수를 위해 현장음의 명시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음의 사례도 살펴본다.



<표 10>의 뉴스는 최근 인간과 소통하는 가정용 로봇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뉴스에서는 가정용 로봇이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영상이 송출되는데, 원천 텍스트에서는 해당 영상에 삽입된 로봇의 음성, 즉 현장음인 ‘So...’와 ‘And the...’와 여자 어린이의 음성인 ‘huh’를 기자의 개입 없이 그대로 송출하고 있어 보도 영상과 보도문은 교차의 연관성을 이룬다.

<표 10> 현장음의 명시화 예시 2

ST 영상 기호	ST 언어 기호	TT 영상 기호	TT 언어 기호
SV1)00:43-00:44 (1초) 	SL1) Robot/So... Girl/huh,	TV1)00:29-00:30 (1초) 	TL1) 아이들이 자기 전
SV2)00:44-00:46 (2초) 	SL2) Robot/And the... Girl/ huh.	TV2)00:30-00:32 (2초) 	TL2) <u>동화책도 읽어줍니다.</u>

목표 텍스트에서는 원천 텍스트의 보도문과 보도 영상 간 교차의 연관성을 해체하고 기자가 개입해 로봇의 음성, 즉 현장음을 ‘동화책도 읽어줍니다’로 명시화함으로써 양 기호 채널이 중복의 연관성을 맺도록 번역하고 있다. 즉, 뉴스 번역사가 일치화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음의 명시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11> 현장음의 명시화 병렬 텍스트 예시 2


PT 영상 기호	PT 언어 기호
PV1)00:29-00:32 (3초) 	PL1) 골프 퍼팅에 성공한 남성에게
PV2)00:32-00:34 (2초) 	PL2) <u>환호를 보냅니다.</u> 로봇 음성: 나이스 퍼트!

병렬 텍스트 <표 11>도 함께 분석한 결과 주인의 골프 퍼팅에 ‘나이스 퍼트’라고 외치는 가정용 로봇의 음성, 즉 현장음이 보도문인 ‘환호를 보냅니다’로 명시화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앞서 논의한 <표 9>의 병렬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기자들 역시 일치화 규범 준수를 위해 현장음의 명시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3.3. 반응자의 감정 명시화


서사적 재현의 반응적 과정에서는 행위 과정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기의인 ‘감정(emotion)’이 목표 텍스트의 보도문으로 명시화되는 전략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의 뉴스는 삭발을 한 소아암 환자를 TV에서 접한 후 한 소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기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2> 반응자의 감정 명시화 예시 1

ST 영상 기호	ST 언어 기호	TT 영상 기호	TT 언어 기호
SV1)00:57-01:03 (6초) 	SL1) Getting her hair cut off, a new bob, and new hair for someone else, someone she imagines getting new bows.	TV1)00:39-00:42 (3초) 	TL1) 난생 처음으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나서
SV2)01:03-01:08 (5초) 	SL2) Ariana: Mom and dad can put bows in her hair.	삭제됨	삭제됨
SV3)01:08-01:13 (5초) 	SL3) Ariana Smith, with a lesson for us tonight, what it means to be America's strong	TV3)00:42-00:47 (5초) 	TL3) <u>행복하고 뿌듯한 표정이죠.</u>

원천 텍스트에서는 보도 영상 속 머리를 자르고 환하게 웃는 소녀의 표정, 즉 반응자와 반응자의 감정의 기의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서사를 구성하는 보도문이 송출됨으로써 분리화 규범이 적용되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목표 텍스트에서는 원천 텍스트의 보도 영상과 보도문의 연관성을 해체한 후 보도 영상 속 반응자의 감정을 ‘행복하고 뿌듯한 표정’으로 명시화하고 있다. 이는 원천 텍스트의 분리화 규범이 ‘반응자의 감정 명시화’ 번역 전략을 통해 목표 텍스트에서 일치화 규범으로 조정되어 번역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 반응자의 감정 명시화 병렬 텍스트 예시 1

PT 영상 기호	PT 언어 기호
PV1)00:28-00:33(5초) 	PL1) 거울에 비친 짧은 머리카락이 어색하지만, 얼굴엔 따뜻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동일한 주제를 다룬 병렬 텍스트 <표 12>에서도 반응적 과정 영상 속 기의가 ‘얼굴엔 따뜻한 웃음이 가득’이라는 보도문으로 명시화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본다.




<표 13>의 뉴스는 한 소년이 자신에게 오랫동안 우유를 배달해 준 택배 아저씨가 최근 관할 지역을 바꾸자 택배 아저씨를 직접 찾아가 감동의 재회를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천 텍스트에서는 소년과 재회한 택배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송출하면서 이와는 독립적인 서사를 구성하는 보도문인 ‘Mr. Earnie, whose real name is Ernest Lagasca, says(본명이 어니스트 라카스카인 어니 아저씨는 말합니다)’를 송출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 영상과 보도문은 교차의 연관성을 이루며 분리화 규범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반응자의 감정 명시화 예시 2

ST 영상 기호	ST 언어 기호	TT 영상 기호	TT 언어 기호
SV1)00:49-00:54(5초) 	SL1) Earnie/ He brightened my day all the time.	삭제됨	삭제됨
SV2)00:54-00:57(3초) 	SL2) Mr. Earnie, whose real name is Ernest Lagasca, says	TV2)01:02-01:05 (3초) 	TL2) 어니 아저씨도 눈 물을 글썽이는데요
SV3)00:57-01:02(5초) 	SL3) although he doesn't get to see Carson's smilie face all the time, they do keep in touch.	삭제됨	삭제됨

반면 목표 텍스트에서는 원천 텍스트의 보도 영상과 보도문의 연관성을 해체하고 서사적 재현의 반응적 과정 속 감정의 기의를 ‘눈물을 글썽이는데요’라는 보도문으로 명시화하고 있다. 즉 목표 언어권의 일치화 규범 준수를 위하여 감정의 기의를 명시화하는 번역 전략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 반응자의 감정 명시화 병렬 텍스트 예시 2

PT 영상 기호	PT 언어 기호
PV1)01:01-01:06 (5초) 	PL1) 대지진의 잔해 속에서 소년의 손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던
PV2)01:06-01:09(3초) 	PL2) 이창학 대원은 소년의 감사 인사를 받고
PV3)01:09-01:11(2초) 	PL3) <u>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u>

<표 13>에 대응하는 병렬 텍스트 <표 14>도 분석해 보았다. 한 남성이 은인과 재회한 후 환한 웃음을 짓는 보도 영상인 PV3)가 보도 영상 속 감정의 기의를 명시화한 보도문인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와 함께 송출되고 있다. 다시 말해 병렬 텍스트에서도 일치화 규범 준수를 위해 감정의 명시화 전략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뉴스 번역사들은 목표 언어권의 일치화 규범 준수를 위하여 기자와 동일하게 영상의 명시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본고의 원천 언어권인 영미권과 목표 언어권인 한국어권에서의 영상 보도 규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보도 영상을 전달하는 보도문의 작성 규범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으며, 목표 언어권의 보도 규범을 준수하는 뉴스 번역의 장르 관습에 의해 어떠한 영상 관련 번역 전략이 활용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언어권별 영상 보도 규범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조사를 일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보도문과 보도 영상의 연관성을 영상 보도 규범의 지표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텍스트 양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영상 보도 규범을 보다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헌 조사 결과 원천 언어권인 영미권에서는 보도 영상과 보도문이 독립된 서사를 구성하며 양 기호 채널이 상보적으로 의미의 빈틈을 채워주는 분리화 규범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표 언어권인 한국어권에서는 보도 영상의 기의가 보도문을 통해 고정됨으로써 양 기호 채널 간 의미 중복이 극대화되는 일치화 규범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텍스트 양적 분석을 통해 문헌 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원천 텍스트에서는 분리화 규범의 지표인 보도 영상과 보도문 간의 교차, 혹은 고정의 연관성이 65.71% 차지한 반면 병렬 텍스트에서는 일치화 규범의 지표인 중복의 연관성이 91.43%를 차지하였다. 이는 원천 언어권에서는 분리화 규범이, 목표 언어권에서는 일치화 규범이 적용된다는 문헌 조사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만, 원천 텍스트에서 분리화 규범이 적용된 사례가 70% 미만

으로 나타난 데 반해 병렬 텍스트에서는 일치화 규범이 적용된 사례가 90% 이상으로 나타나 원천 언어권의 분리화 규범은 목표 언어권의 일치화 규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약한 규범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동적 영상인 서사적 재현의 행위 과정 영상과 감성적 영상인 서사적 재현의 반응적 영상으로 보도 영상을 유형화하여 보도문과 보도 영상의 연관성 양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위 과정에서는 각 언어권에서 적용되는 기본 규범에 비해 일치화 규범이, 반응적 과정에서는 각 언어권에서 적용되는 기본 규범에 비해 분리화 규범이 더 강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성의 산물인 감성적 기의가 개입되는 반응적 과정 영상에서는 해당 기의를 보도문으로 명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뉴스 객관성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실제 목표 언어권 일치화 규범 준수에 의한 TV 뉴스에서의 영상 관련 번역 전략을 분석한 결과 서사적 재현의 행위 과정에서는 행위자와 벡터 그리고 목표물, 그리고 현장음을 보도문으로 명시화하는 전략이, 서사적 재현의 반응적 과정에서는 반응자의 감정의 기의를 보도문으로 명시화하는 전략이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TV 뉴스 번역에서 영상과 관련된 번역 전략을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했다는 점, 병렬 텍스트 분석을 함께 실시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 그리고 ‘이미지 문법(Visual Grammar, Kress and van Leeuwen 2006)’을 활용하여 TV 뉴스 영상 커뮤니케이션 분석의 방법론적 어려움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단, 향후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 혹은 설문 조사 등의 방법론을 추가해 특정 TV 뉴스 번역 전략이 나타나는 텍스트 내적 요인은 물론 텍스트 외적인 요인도 논의에 포함 시킴으로써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수정 (2013) 「방송 뉴스 번역 양상에 관한 연구 - CCTV4 <금일아주>의 한국뉴스 번역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7(1): 1-26.

- 구명철 (2002) 「독일 광고에 나타난 언어기호와 시각기호의 관계-광고 카피의 해석에 있어서 그림의 역할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84: 426-445.
- 김수정 (2003) 「뉴스 객관성의 영상화-한국과 미국의 환경뉴스 사례의 비교연구」, 『韓國言論學報』 47(5): 363-384.
- 백선기 (2010) 『보도 비평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성창경 (2003) 「월드컵 관련 텔레비전 뉴스의 선정성에 관한 KBS와 NHK 비교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홍 (1998) 『TV 뉴스: 취재에서 보도까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성엽 (2014) 「그림책 번역-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5): 105-129.
- 이정은 (2013) 「말(馬)의 시각적 재현을 중심으로 예술적 상상력 표현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예술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 이종수 (1999) 「텔레비전 뉴스 영상 구성」, 『한국방송학보』 12.
- 이지연 (2007) 「TV 방송 뉴스 번역의 특성: 격식성과 정중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263-282.
- 이창훈 외 (2012) 「시청기기 차이에 따른 수용자의 미디어콘텐츠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학회』16(0), 97-103.
- 정나영 (2013) 「TV 뉴스 번역에서의 삭제 양상 분석 -KBS 월드뉴스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14(1): 301-329.
- 정은증 (2005) 「디지털 광고사진에서의 여성의 성(性) 이미지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영재 외 (2013) 「텔레비전 뉴스 포맷의 국가간 비교 연구: 도식화와 변화」, 『언론과학연구』 13(3): 661-692.
- 최용호 (2004) 「언어와 이미지 - 두 매체 사이의 관계 유형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16(0): 425-447.
- 최희경 (2011) 「번역서 표지의 변이 양상에 관한 기호학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15: 441-464.
- 홍정민 (2014) 「국내 언론사 뉴스 번역사의 역할과 지위 연구 -영어 뉴스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alirano, G.(2013). The strange case of The Big Bang Theory and its

- extra-ordinary Italian audiovisual translation: A multimodal corpus-based analysis.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21(4), 563-567.
- Baumgarten, N. (2008) 'Year, that's it!: Verbal reference to visual information in film texts and film translations', *Meta* 53(1): 6-25.
- Bani, S (2006) 'An analysis of press translation process.' In *Translation in Global New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Warwick, June 2006*, edited by Conway K, and Bassnett, S.: 35-46.
- Barthes, R. (1977) *Image-Music-Text*. London: Fontana.
- Bielsa, Esperanca (2007) 'Translation in Global News Agencies,' *Target* 19(1): 135-15.
- Boyd Andrew (1988) *Broadcast Journalism: Techniques of Radio and TV News*. Great Britain: Heinemann Professional Publishing.
- Bradley, M.M. (1994) Emotional memory: A dimensional analysis. In S.H.M. Van Goozen, N.E. Van de Poll, & J.A. Sergeant (Eds). *Emotions: Essays on emotion theory* (pp.97-13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acioppo, J.T. & Tassinary, L.G. (1990) *Principles of psychology: Physical, social, and inferential elemen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n, Ya-Mei (2011) 'Translator's Subjectivity and Its Constraints in News Trans-editing: A Perspective of Reception Aesthetics,' *Meta* 56(1): 119-144.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the spread of ideas in translation theory*,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Fernandes, A. et al (2011). Changing the focus of attention: The interacting effect of valence and arousal. *Visual Cognition*, 19(9), 1191-1211.
- Gibson (1991) *Radio and television reporting*, Allyn and Bacon: Boston.
- Hudson, R.A. (1980). *Socio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tola, A. (2016) 'Towards a multimodally oriented theory of translation: A cognitive framework for the translation of illustrated technical texts,'

- Translation Studies 9(1): 67-81.
- Kress and van Leeuwen (2006). *Reading Images—The Grammar of Visual Design*, London: Routledge.
- Lean Lei Li (2011). ‘A Visual Analysis of Festive Television Commercials in Malaysia,’ *Multilingua* 30: 305-317.
- Mossop, B. (1990) ‘Translating institutions and idiomatic translation,’ *Meta*, 35(2): 342-355.
- Mitchell, W.J.T. (1994) *Picture Theory*.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Press.
- Reeves. R. et al. (1991) Negative and Positive Television Messag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6, 679-694.
- Stetting, Karen (1989) ‘Transediting - A New term for coping with the grey area between editing and translating’ G. Cale, ed. *Proceedings from the fourth Nordic conference for English studies*. University of Copenhagen, 1989. 371-382.
- Tannenbaum, P.H., & Lynch, M.D. (1960) ‘Sensationalism: The Concept and its measuremen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37(3): 381-392.
- Wang Jiayu (2014) ‘Criticising image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visual semiosis in picture news,’ *Critical Arts: South-North Cultural and Media Studies*, 28(2): 264-287.
- Zabalbeascoa, P. (2008). The nature of the audiovisual text and its parameter. In Jorge Diza Cintas (ed.), *The nature of the audiovisual text and its parameters* (pp. 21-38).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Abstract]

**A Study on the Strategies of TV News Translation from Korean into English: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sual and Verbal Signs**

Jeong, Nayoung
(Kongju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find the difference of the reporting norms, the norms concerning writing verbal signs that convey the meaning of image in particular, between the source and target country's media. In addition, this paper also seeks to identify image-related translation strategies in TV new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media of the US and the UK considers image signs and verbal signs as a means to deliver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respectively, and their reporting norm is that subjective verbal signs should not fix the meaning of the objective image signs. This is called 'distance norm'. On the other hand, the media of Korea considers both image and verbal signs as a means to deliver objectivity and its reporting norms is that objective verbal signs should fix the meaning of the objective image signs, which is called 'redundancy norm'.

Key Image-related translation strategies in TV news are the explicitation of the actor, vector, goal and the soundbite in action process image into verbal signs and the explicitation of the emotion of the reactor in reactional process image into verbal signs.

▶ Key Words: TV news translation, image-related translation strategies, verbal signs, image signs, explicitation

정나영

국립공주대학교 관광영어통역학과 시간강사

skdud84@daum.net

관심 분야: TV 뉴스 번역, 미디어 번역, 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17년 10월 25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3일